요즘엔 어딜 가든 김우빈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제2463호 www.metroseoul.co.kr

"추신수 957억 양키스행"

빵빵 터지지만 뻥뻥 뚫린다

英 보안업체 "전세계 공용 와이파이망 61% 사이버범죄에 사실상 무방비" 스마트뱅킹 해커 최대 사냥감 - 안심귀가 앱은 납치·유괴에 악용될 수도

김민석(35·가명)씨는 최근 모 통신사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2년 의무 약정이 끝났으니 번호이동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김씨는 최근 스타벅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곳에서 스마트폰으로 e메일을 보내기 위해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했는데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를 입력해야만 됐다.

김씨는 "약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가입 중인 이통사보다 경쟁사에서 먼저 알았다는 게 의아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를 쓸 때 입력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도서관, 카페, 공항, 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용 와이파이가 인터넷 관련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와이파이는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일정 범위의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다. 즉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넘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뱅킹'은 해커들이 노리는 가장 큰 사냥감이다.

공용 와이파이에서 스마트뱅킹을 할 경우 이름과 계좌번호는 물론 비밀번호, 보안카드 넘버,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등 중요한 정보가 고스란히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커가 공공장소에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 사용자를 유인한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스마트뱅킹으로 실제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범죄를 일삼는 해커들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대담해져 모바일 금융거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유행하는 '안심 귀가' 앱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어린이, 여성, 노인의 동선을 사용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앱이 인기인데 해커가 공용 와이파이에 들어와 해당 정보를 공유한다면 유괴나 납치와 같은 극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공용 와이파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문은 보안 전문업체 퍼플와이파이가 전 세계 33만개 와이파이망을 대상으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61%가 넘는 2048개 시설에서 이 같은 취약한 보안 문제가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공용 와이파이 사용을 마냥 자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와이파이를 쓰지 않으려면 LTE 서비스 기준 매달 최소 10만원 이상인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최저 요금제(3만5000원)와 비교할 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나마 35요금제를 선택해도 매월 쓸 수 있는 무료 데이터 제공량은 550MB에 그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공자가 불명확한 AP는 피하고 금융거래는 가급적 공용 와이파이망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 노트북의 경우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답부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죽어서도 부하들 곁에… 채명신 장군 1평 사병 묘역에 묻히다

베트남전쟁 당시 초대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을 지낸 고 채명신 장군이 28일 오전 서울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영결식을 마치고, 유언에 따라 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병 묘역인 서울현충원 월남전 참전용사 제2묘역에 안장됐다(위). 이날 영결식에는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헌화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패스트푸드' 한국영화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얼마 전 한 영화감독이 인터뷰 중 "한국 영화가 10년 전에 비해 많이 자극적으로 변했다"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흥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욱 센 장면을 넣어야 하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이 감독의 말마따나 요즘 한국 영화는 온통 자극적인 장면들로 도배돼 있다. 이달 개봉한 영화 대다수에 잔인한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다.

처음 몇 편은 그럭저럭 참고 봤는데, 온통 피범벅이 된 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계속 보니 영화관을 나올 땐 속이 좋지 않을 정도였다.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 단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있는 듯해 더욱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런 소재는 한국 영화뿐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였고 그중에는 호평과 함께 사랑을 받은 작품들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영화가 보여주는 현상은 장르의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

관객 입장에선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중복해서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이달 한국 영화 성적은 '친구2'만 전편의 이름값에 힘입어 250만 관객을 동원했을 뿐 나머지 영화들은 이렇다 할 흥행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상업적인 의도로 제작된 자극적인 영화를 패스트푸드에 비유한 게 생각이 난다. 패스트푸드가 아닌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다채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요즘이다.

뉴스 & 뉴스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 민주당 의원들 출석 통보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녀 감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김현·이종걸 의원에게 다음달 2~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국정원 댓글녀는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김황식 전 총리 "내년 서울시장 선거출마 생각안해"

●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가 28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에서 출마 요청이 와도 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선출직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불출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인도 차량진입 막으려다 사람 잡을라… 화강암 재질에 시각장애인 부상 속출

'거리의 흉기' 된 볼라드

인도 등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가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의 '지뢰'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볼라드는 지나치게 낮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석재 등을 사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가 손목을 다치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는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 ▲밝은색의 반사 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할 것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사용 ▲시각장애인에게 충돌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는 거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9년 만들어져 그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골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원숙(61·여)씨는 "나같은 많은 시각장애인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있다"며 "볼라드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도를 침범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안산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안산시는 253만24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볼라드를 교체하는 데 드는 부담 등을 고려해 안산시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김강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불법 주차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설치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라며 볼라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깜찍한 멋시 자랑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제3회 어린이 한복 홍보대사 선발 및 우리의 멋 한복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깜찍한 런웨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저소득층 디지털TV 싸게 산다

다음달부터 30~40%↓

내달부터 저소득층은 디지털 TV를 시중 가격보다 30~40%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TV 보급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저소득층 204만 가구 중 디지털 TV가 없는 약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2017년까지 시중가보다 30~40% 저렴하게 디지털 TV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에 대한 복지형 상품(3000~4000원) 제공과 요금 감면 혜택도 병행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다. /조현정기자 jhj@

올겨울엔 탄소다이어트 김재윤 국회 국제경기특위 위원장과 전현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저탄소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문심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왼쪽부터)이 28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과 함께 저탄소 인천아시안게임을 기원하는 '올겨울 탄소다이어트'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70% "복권 당첨되면 회사 그만두겠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복권에 당첨되면 직장을 관둘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8%(615명)가 평소 복권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일주일에 복권을 구매하는 개수는 평균 1.9개로 집계됐으며 1개(58%), 2개(21.4%), 5개(12.5%) 등의 순을 보였다.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의 용도로는 저축·부동산·주식 등 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69.4%)은 복권에 당첨된다면 직장에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원승일기자 un sue@

715억원 안 낸 조동만

세금 1년 넘게 5억 이상 체납한 2598명 명단 공개· 신삼길도 351억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체납자 2598명의 명단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1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84억1600만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태다.

신구 세금 체납 명단공개자 추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가운데서는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억)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자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명단을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 /김민지기자 mn @metroseoul.co.kr

외항상선 3급 과정 수료식 열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정철택)은 지난 27일 오전 대스타부 캐어서 해양수산부 재육선사 수료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션올리픽 제21기 외항상선 3급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비스업 기초안전 지원사업 해단식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재동)는 지난 28일 '서비스업 기초안전 지원사업' 수행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

연말 마술쇼 초청행사 진행

한 해를 보내는 각종 연말 행사에 신기한 마술쇼 공연은 몇 년전부터 유행하는 추세다. (사)한국마술협회부산지부는 내달 9일부터 31일까지 2013년 송년행사 마술쇼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협회 측은 송년회 행사 시 4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마술사들이 출장 마술쇼를 선보인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마술협회 전문마술사는 리지매직·조늘레 조영춘 금빛나 이정운 최준관마술사 등 10여 명이 나선다. 한편 14일 2~6시까지 송년특별단기마술도 개최한다. 특별 할인 금액 5만원이다.

문의 051)441-7895

부경경마공원 '4색 교육 프로그램' 빛났다

중학생 진로탐색 '펀펀스쿨' 등 연령별 맞춤 서비스 화제

KRA 부산경남경마공원(본부장 김학신)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이 정부 3.0의 정책 기조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화제다.

국민 속의 KRA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된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부·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년 처음 선보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각 연령층에 맞춰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교육기부 순환 프로그램은 수요자의 입맛을 최대한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기부 순환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모든 연령층이 경마공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리수리 마수리(馬數理) 캠프'는 경주로를 활용한 원주율 계산, 경마를 통한 확률 공부, 직업 탐방 체험 등 시설 인프라와 교과목의 직접적 연계를 통해 '경마공원=체험교실'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펀펀(FunFun) 스쿨'은 다양한 공기업 탐방을 통해 여러 직업군을 경험하고 진로 탐색에 활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현장실무 위주로 구성된 '산학 협력'은 마필 관련 직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생 '잡멘토링'과 '멘토링 캠프'는 현재 대학생들의 큰 고민인 취업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해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KRA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작년 12월 부산광역시, 부산교육청, 부산 상공회의소, 부산일보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교육 메세나 탑을 수상했다. 지난 1월에는 교육부 장관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우수인증기관 인증패 수상 및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경마공원 관계자는 "펀펀스쿨의 참여 공기업 확대, 참가 학교 및 학생의 증가, 경남도 내 초교 130개의 학교가 수리수리 마수리 캠프에 참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내실화에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한·일 항공협력회의 개막 2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7차 한·일 항공협의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한·일 정부 항공 관계자들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양국 관계자들은 이날 두 차례 회의에서 항공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방향, 항공화물 보안정책, 인천·김포, 나리타·하네다 등 한·일 수도권 공항 운영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국 글로벌기업 102개사 수출상담회 5억달러 성과

중국 글로벌 기업 102개사가 참가한 수출상담회가 부산에서 열려 총 5억 달러 상당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코트라 동남권 지원단은 27일 벡스코에서 개최한 '차이나 빅 100'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4억9500만 달러, 계약추진액 1억8430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연 매출액 1억 달러 이상의 중국 글로벌 기업과 중국 정부 프로젝트 발주 업체 102개사가 참가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수출 중소기업 291개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성과로 부산 강서구 소재 D사는 우한(武漢)의 시노테크(SINOTECH)사와 100만 달러 상당의 하수처리장치 구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위치한 F사는 선양(瀋陽)의 한 자동차부품회사와 공동으로 제품 개발에 나서 중국 자동차부품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규모만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선박엔진을 생산하는 부산 강서구의 G사도 칭다오(青島)의 한 회사와 2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추진 중이며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JHK사는 광저우(廣州)의 회사와 150만 달러 상당의 캐릭터 수출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음식쓰레기 처리기 수입을 위해 부산을 찾은 차이나 블루스타 인터내셔널사는 한국의 W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1000대를 수입하기 위한 상담을 벌여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

천병재 코트라 동남권 지원단장은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중국 기업이 대부분 구매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로 동남권 수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가지 발효채소 들어간 샌드위치

금정구자활센터 '로바니아' 개소 … 가격도 저렴

금정구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의 자활 기반 마련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금정구자활센터의 '로바니아' 샌드위치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와 금정구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7일 금정구 부곡동 인근에 순수 자연 재료로 만드는 샌드위치 사업장 '로바니아'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금정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비 4000만원과 금정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활기금 2000만원을 보태 신규 사업장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만드는 샌드위치는 6가지 발효 채소와 20여 가지의 순수 자연 재료를 독특한 기술로 2달간 발효시켜 만들어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다. 방부제나 색소 및 인공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 식이섬유가 부족한 성인 및 아이들 간식으로 안성맞춤이다.

모닝샌드위치, 콘샌드위치, 블리스샌드위치 등 다양한 샌드위치를 저렴한 가격(2000~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소로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해, 향후 지역 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2012년 기준>

인제대 취업률 70.5%…부울경 1위

경남정보대 전문대 취업률 70.3% 부산 '으뜸'

최근 교육부가 공시한 2012년 전문대학 취업률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인제대학교가 최상위권(1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됐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인제대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이 졸업생 2000명 이상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70.5%로 유일하게 70%를 상회했다. 이어 동서대가 68.9%, 동의대가 68.6%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4년제 대학 '나' 그룹(졸업자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전국 대학 중에서도 6위에 랭크돼 취업이 잘되는 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대학 관계자는 "입학에서 졸업 후 취업까지 학생을 책임지는 '평생지도교수제' ▲자격증·전문가 과정 및 학과별 진로·취업 교육 등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등을 실시해 노력한 결과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정보대학교가 작년 기준 취업률이 전문대학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70%를 넘어선 70.3%로 1위를 차지했다.

또 부산·울산·경남지역 전문대학 중 졸업자 2000명 이상 전문대학 가운데에서도 1위에 올랐다.

대학 측은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해 학습 지원, 취업 지원, 경력 지원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기업에서 원하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취업률을 발표하고 있다. 6월에는 당해 연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 이번 11월 공시 자료는 2012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창업자, 프리랜서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혜윤기자 jhk@metroseoul.co.kr

개운한 대구 매운탕 맛볼까 영양만점 해물 전복 먹을까

롯데호텔부산 '무궁화' 선봬

롯데호텔부산 한식당 무궁화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영양과 맛을 생각한 따끈한 한 그릇 요리 '무궁화 겨울 냄비요리 특선'을 선보인다. 제철 대구로 끓여낸 얼큰하면서도 개운한 대구 매운탕 코스와 전복이 그대로 들어가 영양 면에서 으뜸인 해물 전복 뚝배기 코스로 준비된다.

대구 매운탕 코스는 사철죽, 잡채, 해물 잣즙 무침과 한우 편채, 대구 매운탕 진지와 반가 별미장, 생식과 수수부꾸미, 후식 식혜로 구성된다. 가격은 7만3000원이다.

해물 전복 뚝배기 코스는 시절죽, 잡채, 해물 잣즙 무침과 한우 편채, 해물 전복 뚝배기 진지와 반가 별미장, 생식과 수수부꾸미, 후식 식혜로 구성된다. 가격은 7만3000원(상기 요금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및 예약 (051)810-6330

/정혜윤기자

미용·재건성형의 모든 것

좋은문화병원 미용성형재건센터(센터소장 황소민)는 오는 6일 오후 2시 본원 11층 강당에서 미용성형재건센터 개설 9주년을 기념해 무료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한다. 황소민 소장의 '미용성형 & 재건성형'과 진준 과장의 '얼굴뼈의 성형 및 악교정수술'이라는 주제로 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51)630-0100

미래 교실 풍경은 — 28일 오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3 시즌과 함께하는 부산교육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스마트 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연구학교박람회, 진로박람회, 직업교육박람회 등 3개 행사를 통합한 올해 부산교육박람회는 '부산 교육을 만나면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 교육의 주요 정책 성과와 연구학교 운영 결과, 직업 교육 등을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행사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뉴시스

'U-산복도로 르네상스' 완료

부산시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산복도로 지역의 도심 재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U-IT 기술을 활용한 'U-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U-산복도로 사업은 ▲복지정보 통합 전달 ▲주민참여형 도심 재생 지도 ▲U-에듀피아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U-서비스도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50%)를 지원받아 지난 3월 착수됐으며 지난 10월 31일 완료됐다.

'호주 1호 조리명장' 릭 스티븐 영산대 명예박사 학위 받는다

세계조리사회연맹 아시아 총괄책임자 겸 호주 1호 조리 명장인 릭 스티븐(56·Rick Stephen·사진)이 영산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영산대는 이날 29일 오전 11시 해운대 캠퍼스 영산문화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 대학은 글로벌 경영 능력과 세계 대회의 국내 유치를 통한 한국 조리 관광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번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인증

부산이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환경부의 제6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부산 금정·영도·부산진·서·사하·남·해운대구 등 7개 구에 걸친 151.43㎢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Geopark)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 및 교육·관광 사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다.

부산은 섬 지역인 울릉도·독도, 제주도에 이어 내륙으로는 첫 인증을 받았다.

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대 자연환경 보전 제도(세계유산, 생물권보존지역, 지질공원)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월 29일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어 기존 공원의 한계점을 극복한 공원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은 구상반려암, 낙동강 하구, 몰운대, 두송반도, 송도반도, 두도, 태종대, 오륙도, 이기대, 장산, 금정산, 백양산 등 12곳의 지질 명소를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코스닥
2045.77 (+16.96)	515.52 (+3.87)

금리	환율
2.89 (+0.02)	1060.00 (-2.50)

"P&G 제품 사면 1%기부" 한국P&G와 롯데마트는 다음달 4일까지 한국 롯데마트 전 지점에서 P&G 제품 행사 제품을 구매하면 매출액의 1%가 적립돼 보육시설 어린이에게 지원된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카드론 0.9%포인트 내린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는 최근 대출금리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카드론을 평균 0.9%포인트, 현금서비스는 0.6%포인트 인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히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를 2%포인트, 신한카드는 현금서비스 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신규 취급분부터 카드론 연평균 금리는 15.5%, 현금서비스는 21.4%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박선옥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규호
사회·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익환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8-2100
독자센터	02)721-9887

2002년 5월 31일 창간(제5호)서울특별시 가00096

오래 살건데 '오래 먹는' 펀드 살까

헬스케어업종 고령화시대 맞아 수익률 '꾸준'

고령화시대를 맞아 헬스케어업종이 가늘고 길게 가는 투자 유망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생소한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올 들어 크게 뛰며 투자자들 곁으로 바짝 다가섰다.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헬스케어 펀드 8개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30%를 기록했다.

해외 금융펀드(28.76%)나 컨슈머펀드(18.31%), 배당주펀드(2.13%), 가치주펀드(6.88%) 등에 비해선 저조하지만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거나 1~2%대의 수익만을 낸 것에 비해선 양호하다.

개별 펀드를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주에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돋보인다. 해외 헬스케어 시장에 투자하는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여러 유형 상품은 올 들어 31~32%의 수익을 냈다. 이 펀드 상품은 미국 의약품 제조사인 머크,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프랑스계 제약회사인 사노피, 미국계 제약회사인 화이자 등 해외 헬스케어주에만 투자한다.

건강식품업체 '두각'

국내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기존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산균 국내 1위 업체인 쎌바이오텍은 올 들어 6.55% 올랐다. 지난 10월 31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내츄럴엔도텍은 상장 한 달여 만에 7.63% 상승했다. 이 업체는 50세 여성 갱년기 완화 효능 건강식품을 제조한다.

자양강장제와 비만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대원제약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연초 대비 16.85% 뛰었다.

전상용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중국, 한국, 일본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 관련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난 6년간 매년 9.3%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시장의 예상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글로벌 수준을 웃돈다. 전 연구원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 기간 매년 5.3%씩 성장해 올해 예상 시장 규모는 1020억 달러(약 108조2500억원)"라고 덧붙였다.

/김현용기자 hjkim1@metroseoul.co.kr

러시아서 발행한 소치 동계 올림픽 기념주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모델들이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공식 기념주화를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이번 기념주화는 다음달 2일부터 공식 판매권자인 풍산 화동양행을 통해 전국 은행 본·지점에서 예약 접수 판매된다. /뉴시스

은행 예금·대출금리 사상 최저

각각 연 2.63%와 4.46%

지난달 은행의 예금과 대출 평균 금리가 동시에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연 2.63%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저치인 8월과 같은 수준이다.

대출금리는 연 4.46%로, 0.08%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지난 6월(4.52%)의 종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예·수신금리가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동시에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세의 영향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특이 요인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신금리 중 정기예금을 보면 평균 2.5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금리대별 가입액 비중은 2~3% 미만이 전체의 93.7%를 차지했고, 2% 미만이 4.0%였으며, 나머지(2.3%)는 3~4% 미만이었다.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연 3.81%로 0.01%포인트 떨어졌으며 소액 가계대출은 5.87%로 0.17%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총 수신금리는 연 2.25%, 총 대출금리는 4.78%로 각각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대마진을 보여주는 총 수신금리와 총 대출금리의 차이는 전달과 같은 2.53%포인트다.

/연합뉴스 news@

글로벌이란 무엇일까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은 혼자가 아닙니다.
599개나 되는 한국의 부품 회사들이
우리 손을 잡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아이디어.

현대자동차그룹에게
글로벌은 '동행'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HYUNDAI
MOTOR GROUP

SKT 이번엔 '3배 빠른 LTE-A'

"영화 한편 받는데 28초" 새 광대역 서비스 시연

KT에 이어 SK텔레콤이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며 이동통신업계 접시전을 그렸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주파수 경매에서 2.6GHz 대역을 확보하며 망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8일 분당 사옥에서 언론 시연회를 열고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과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을 캐리어어그레이션(CA) 기술로 묶어 최대 225Mbps 속도를 제공하는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이 내년 하반기 225Mbps 속도를 지원하는 칩셋을 출시하는 대로 스마트폰 기반의 광대역 LTE-A를 상용화할 방침이니 이렇게 광대역 LTE-A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면 800M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28초면 내려받을 수 있다. 같은 분량의 영화를 내려받을 경우 3G는 약 7분24초, LTE는 약 1분25초, LTE-A는 43초 소요된다.

앞서 KT 역시 내년 225Mbps 속도의 광대역 LTE-A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전무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통신사 최초로 서울지역에 이어 수도권 전 지역에도 광대역 LTE를 구축 완료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광대역 LTE와 LTE-A가 모두 수용 가능한 전용 칩셋이 출시되는 시점에 최대 225Mbps급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자신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데 반발했다. 오히려 경쟁사와 달리 내년이 광대역 LTE 시장에서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계획대로 2.6GHz 대역을 활용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연내 시작할 것"이라며 "경쟁사 대비 다소 늦었지만 가입자 수 대비 가장 넓은 주파수 대역(800MHz, 2.1GHz, 2.6GHz)과 폭을 갖고 있어 고객들이 타사 대비보다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역시 경쟁사는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을 묶어 225Mbps 속도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3개 밴드를 결합해 최대 300Mbps 속도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SK텔레콤 광고 모델인 그룹 소녀시대의 윤아(오른쪽)와 에프엑스(f(x))의 설리가 28일 성남시 수내동 SK텔레콤 ICT기술원에서 '3배 빠른 광대역 LTE-A'를 선보이고 있다.

패러렐즈 '아이패드 원격앱'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 업체 패러렐즈는 28일 아이패드용 원격 지원 앱을 출시했다.

이 앱이 있으면 아이패드에서 PC나 맥(Mac)에 원격으로 접근해 윈도나 맥의 응용프로그램을 아이패드 앱처럼 쓸 수 있다. 멀티미디어 기능이나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아이패드처럼 이용하는 셈이다.

윈도 PC용은 현재 무료로 베타 버전을 제공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패드에서 구동하는 앱은 개발 중이다.

아이패드용 패러렐즈 앱은 14일간 무료 시험판을 지원하며 1년 이용료는 79.99달러다. 이 앱은 아이패드2, 아이패드3, 아이패드 미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티브로드 '브로닌 ' AFT에

티브로드(대표 이상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TV 포럼 & 마켓(ATF)'에 '브로닌의 전통시장 답시기'로 참가한다.

ATF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모여 프로그램을 거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마켓이다.

올해 KISA가 지원한 양방향 프로그램 중 티브로드를 포함해 KBS미디어, IB미디어넷 등 8개 업체가 이번 ATF에 참가해 전시부스 운영과 쇼케이스 등을 통해 국내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릴 예정이다.

티브로드가 참가작으로 출품하는 '브로닌의 전통시장 답시기'는 실시간 지역 채널에 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더하고, 연동형 양방향 데이터 방송과 VO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결합한 콘텐츠다.

/장세규기자 kcet@

"키스로 기부하세요" 28일 N서울타워 키스트리 앞에서 모델들이 '키스 파라다이스-1004의 키스' 이벤트의 개최를 알리며 키스신을 연출하고 있다. N서울타워 앞에 설치된 키스트리 앞에서 커플이 키스할 때마다 1인당 1004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는 행사로, 참가자가 1004명이 넘으면 적립금은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중국 녹만광학교의 꿈나무 공부교실에 지원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장년·청년 일자리 희비

작년 전체 2.6% 증가 속 60대 14%↑ 20대 2.6%↓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이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일자리 증가 속도는 둔화된 가운데 20대 일자리는 줄고 50대 이상에서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를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2년 말 1591만3000개로 1년 전보다 40만8000개(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중 30대가 점유한 일자리가 470만1000개(29.5%)로 가장 많았고, 40대(421만6000개·26.5%), 20대(302만5000개·19.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50대는 20만4000개(7.9%), 60세 이상은 12만4000개(13.9%) 늘었고 40대도 12만3000개(3.0%)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 개(2.6%) 줄었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방증한 셈이다.

특히 신규 대체 일자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138만2000개)로 가장 높아 20대의 고용 안정성이 취약함을 드러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중 남성의 일자리는 992만2000개(62.3%), 여성은 599만2000개(37.7%)로 남성의 비중이 컸다. 1년 전에 비해 여성이 점유한 일자리는 25만9000개 늘었고 남성은 15만 개 증가에 그쳤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방기자 kmkee@

내년 만기 회사채 41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4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해운 등 취약 업종의 회사채 만기가 몰려있는 내년 2분기에는 한계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압박이 극심할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2014년 만기가 돌아오는 일반 회사채 규모는 모두 41조2000억원으로 올해 38조7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24조2000억원이지이며 하반기에는 17조원 규모다. /김현정기자

미래부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대폭 개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창조경제타운' 사이트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9월 30일 서비스를 개시한 창조경제타운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창조 아이디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사이트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를 구축해 29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민간의 260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 사업 지원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과 상세 검색 기능을 마련했다. 또한 페이스북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활용한 SNS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한편 창조경제타운 회원 수는 지난 27일 기준 1만5275명, 접속자는 15만6691명이며, 등록된 아이디어는 총 3439건에 달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

CNN이 엄지 열번 든 '한국'

인터넷·신용카드 사용·직장 회식문화 등 10개 항목 '세계 최고'로 꼽아

"인터넷 환경, 신용카드 사용, 일중독, 직장 내 음주 문화, 스타크래프트 게임, 소개팅, 성형수술, 획기적인 화장품, 여자 골프선수, 항공사 승무원 서비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런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 세계 최고로 거론되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CNN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10가지'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국토 면적이 세계 109번째규에 인되는 작은 나라지만 이 10개 항목 만큼은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CNN은 인터넷·스마트폰 문화(wired culture)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82.7%로 세계적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7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CNN은 "한국인들은 상점에서 돈을 내거나 지하철에서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데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며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으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인들의 신용카드 사랑도 유별나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년 전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택시가 신용카드 기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중독과 직장 내 음주 문화도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꼽혔다.

CNN은 "한국 어느 도시에 가든 때 퇴지게 일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빌딩에 불이 환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일하지 않을 때는 소주를 마시면서 거래 상사를 축하하거나 술품을 털어버린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게임 문화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CNN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다른 나라에서였다면 구제 불능의 괴짜(nerd)였을 이들을 최고 소득자이자 유명인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화장품에 대한 실험 정신, 각종 프로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여성 골퍼들, 항공기 승무원들의 훌륭한 서비스, 젊은이들의 소개팅 문화, 외국에서 몰려들 정도로 인기 있는 성형수술의 메카 등도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국현기자 kmee@metroseoul.co.kr

간병로봇의 밀착케어 "거리 좀 둘까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국내 최대 대학생 정보기술(IT) 박람회인 한이음 엑스포 2013 에서 목원대학교 관계자들이 휠체어형 간병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황 속 건설업계 '온정나눔' 더 뜨겁네

최악의 건설 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설업계의 온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건설은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 plant)' 사옥에서 희망메이커 후원가정 지원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키트' 제작 행사를 개최했다. 희망메이커는 임직원 기부로 마련한 기금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류 활동을 갖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보온이불, 방풍커튼, 문풍지, 보온장갑 등 14개 방한 물품과 후원 대상자에게 직접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희망키트 상자에 담았다.

한진중공업은 부산과 서울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부산에서는 임직원들이 모금을 통해 사들인 김장 김치 2000여 포기를 지역 주민 200여 명과 직접 담근 후 포장해 영도구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1000여 세대에 배달했다.

또 서울에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000포기가 넘는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대우건설도 서울·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을 초빙, 본사에서 '2013 대우건설 사랑나눔 콘서트'를 최근 개최했다. 총 11개 시설 350여 명의 장애인과 직업재활사,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우건설 임직원과 외부 재능기부팀들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이 건설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지원해주거나 소외계층에 집을 지어주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pss@metroseoul.co.kr

강남 APT 1채 팔면 전남서 5채 산다

지역별 상위 10% 아파트값 평균이 가장 비싼 지역과 가장 싼 지역간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 매매가 상위 1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6176만원에 달했다. 이는 가장 낮은 전남의 2억5043만원보다 무려 5.4배 높은 금액이다.

서울에 이어 경기가 6억4199만원, 부산이 5억680만원, 인천 5억451만원, 울산 4억346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고가의 대형 아파트가 집중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위치한 단지들이 매매가 상위 10%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는 분당, 판교, 광교 등 신도시 지역 내 위치한 단지들이,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가 매매가 상위 10%에 포진됐다. /이선애기자

기업 순이익 점점 악화 1000원 팔면 고작 47원

28일 통계청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 총 1만2010곳을 대상으로 한 '2012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의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47.2원으로 전년 대비 4.6원 줄었다. 이 같은 국내 기업의 순이익 수준은 금융위기 당시 수준보다도 떨어진 것이다. /이혜민기자 | yel403@

신한은행 '따뜻한 겨울나기' 66억 모금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직접 기부에 참여하는 '사랑의 클릭'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네이버 해피빈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창이 운영 중이며 네티즌들이 모금한 금액에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약 66억원의 모금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네티즌도 함께하는 기부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에이즈 치료제의 진화와 시계

시크릿 노트

"아프리카 사람들은 손목시계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어도 에이즈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TV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웨스트윙'(2000년 방영)의 한 장면. 아프리카 국가의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 제약사 임원들 사이에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의 아프리카 '무상 지원'을 두고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간다. 팽팽한 공방 끝에 치료제를 지원키로 했지만 이들은 뜻하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손목시계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

시계와 치료제가 무슨 연관일까. 사실 HIV에 감염되더라도 HIV의 증식을 막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에이즈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수십 알이 넘는 약들을 각기 매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순전히 시계가 없는 탓이었다.

하지만 이는 10년 전 이야기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금 HIV 치료제는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더 쉽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복약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에 하루 한 줌의 치료제를 먹어야 했다면 최근에는 복합제가 개발돼 몇 개의 알약만 복용해도 되는 혁신적인 진화가 이어졌다. 평생 약물을 복용하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야 하는 HIV 치료의 특성상 치료제는 내성이 적고 장기 복용에 편리할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에 단 한 번, 단 한 알만 복용해도 되는 가장 혁신적인 치료제가 개발됐다. 여러 기존의 약물을 단 하나의 알약에 담아 '1일 1회 1정' 복용하는 단일정복합제다. 하루 한번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복용 편의성을 최고로 높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및 우수한 내약성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 주인공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스트리빌드'다. 치료상 장점 및 환자 편의 때문에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HIV 표준 치료법 중 하나로 권장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월 허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스트리빌드가 가져올 혁신이 기대된다. /황재용기자

맥코리아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립 제품을 판매한 금액 전부를 기부하는 등 큰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립스틱으로 생명 구한다

메이크업 브랜드 맥 립 제품 판매액 에이즈사업 지원 … 청소년에 올바른 성지식 교육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이다. 매년 이맘때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후원이 진행되는데 한 제품을 판매한 금액 전액을 기부하는 회사가 있어 주목된다.

세계적인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맥(MAC)은 매년 비바글램 립 제품을 출시해 판매액 전액을 맥 에이즈 펀드에 기부해 전 세계 에이즈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맥 비바글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립스틱 및 립글로스 판매액 전액을 에이즈 펀드에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비제약 부문 세계 최대 규모의 에이즈 펀드다. 지금까지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누적 기부액은 전 세계적으로 2700억 원이 넘으며 맥코리아도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꾸준히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지금까지 31억원 이상을 국내외 에이즈 관련 단체에 기부해 에이즈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지원해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비바글램 제품 판매액으로 조성한 8억9000만 원의 맥 에이즈 펀드를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단체인 탁틴내일에 기부해 상대적으로 성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전국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교육 버스 제작을 지원했다.

더욱이 올해 2월 1일에는 총 10억 원을 사랑의열매와 유니세프에 기부했으며 이 금액은 해외 에이즈 퇴치 및 치료 사업과 국내 청소년 성교육 사업에 쓰였다. 또 다음달 1일에는 에이즈의 날을 맞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 기부 봉사활동과 성범죄에 비교적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성범죄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탁틴내일의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에는 올해 비바글램 립 제품의 판매 수익금 13억여 원을 사랑의열매와 유니세프 등 국내외 에이즈 관련 단체에 추가 기부할 계획이다. 맥코리아 관계자는 "맥코리아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이즈 감염 환자 수가 적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치료 사업뿐만 아니라 올바른 청소년 성 문화 정착과 에이즈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성교육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매년 비바글램 홍보대사로 선정돼 캠페인을 함께 벌여왔는데 지금까지 엘튼 존,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다이앤 키튼, 레이디 가가 등이 역대 홍보대사로서 활약했다. 국내에서는 맥 에이즈 펀드 홍보대사 한국 대표로 배우 지성씨가 임명된 바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지노베타딘' 홈페이지 개편

● 한국먼디파마가 대표 여성질환인 질염과 관련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세정제 '지노베타딘'의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제품의 효능과 효과, 사용법, CF 영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으며 질염에 대한 정보 및 질염 예방 십계명, 생활 속에서 여성세정제가 필요한 상황 등이 소개된다.

당진공장 찾은 마다가스카르

● JW중외그룹은 최근 마다가스카르공화국 보건의료계 대표단이 충남 당진에 위치한 JW당진생산단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액제를 비롯한 다양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JW당진생산단지의 우수한 시스템을 통해 자국의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대표단은 수액용기의 성형 제조부터 충전, 멸균, 포장에 이르는 수액제 생산 과정 등을 둘러봤다.

'엔브렐' 출시 10년 심포지엄

● 한국화이자는 최근 엔브렐 국내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는 '엔브렐 10년의 혁신과 진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엔브렐 10년간의 혁신과 진화 ▲브레 주요 연구 결과 및 향후 고려해야 할 영역 ▲인건성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에서 TNF(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의 안전성 프로파일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영·유아 종합영양제 '텐텐산'

● 한미약품이 특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12개월 영유아용 종합영양제 '텐텐산'을 출시했다. 텐텐산은 17가지 성분의 비타민 및 미네랄과 면역력을 증진하는 아연,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노시톨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방부제와 타르색소가 없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1g 단위 스틱 포장으로 돼 있어 위생 보관과 정량 복용이 가능하다.

"직원이 커야 회사가 성장하죠"

로슈그룹 'ALPS' 제공 해외 파견 다각도 지원도

'연봉' 외에 기업의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가 생기면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 '로슈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리가 튼튼해야 회사가 성장하죠!

로슈그룹은 선사적인 인재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간관리자 리더십 프로그램인 'ALPS (Accelerated Leadership Program)'다.

ALPS는 조직의 실무 리더자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강화가 회사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회사의 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정직, 용기, 열정'이라는 로슈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직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참가자와 공유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롤플레잉을 진행하는 한편 경영진들과도 자신의 경험을 논의한다.

한국로슈 직원들은 ALPS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해외 파견 등 다양한 지원

로슈그룹은 또 해외파견 근무도 장려하고 있는데 회사는 직원의 현지 적응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선 외국어 교육과 근무할 국가의 문화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직원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별도 담당자가 생활품 구입, 거주 등록 절차 등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의 입학 절차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한국로슈에서도 최근 5년간 다수의 인원이 스위스 본사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로 파견 근무를 다녀왔다. /황재용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global

metro Russia

Студенты устроили бо роботов

metro Canada

Villeray. Bilan satisfais pour le compostage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퇴비화 사업 성공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퇴비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모든 음식물 쓰레기 양이 무려 12t에 달한 것.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3분의 1 기간 동안 이미 전체의 50%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았으며 총 8000여 가구가 참여해 이번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4년 12월까지 계속되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범위 및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metro Sweden

Moské utsatt för skadegörel

무슬림 사원에 돼지다리 투척 수사 착수

최근 스웨덴에서 무슬림 사원에 돼지 다리를 투척해 유리창을 부수는 등 기물파손 사건이 벌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무슬림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물파손이 아닌 특정 민족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범인을 찾고 있다. 사건이 벌어지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무슬림 사원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비보이 빰친 로봇 '댄스배틀'

대학생이 만든 안드로이드 로봇 총출동 · 영화 방불케한 일대일 격투에도 관객 환호성

탁월한 전투력과 댄스 실력을 자랑하는 리틀 트랜스포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트랜스포머를 연상시키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다양한 게임과 전투 대전을 펼치는 엔지니어 스포츠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로봇은 모두 대학생들이 자체 기술로 개발, 관심을 모았다.

수동으로 로봇을 조종해야 했던 기존 안드로이드 로봇들과는 달리 이번에 개발된 로봇들에는 자체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제작자가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1라운드는 미로를 가장 먼저 통과하는 로봇이 이기는 '미로 탈출하기' 게임으로 시작됐다. 경기에 출전한 로봇들은 장애물이 나타나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머리로 장애물 벽을 들이박는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로봇 주인들은 규칙상 손으로 로봇을 만지거나 제어할 수 없었다.

모스크바 민족우호대학(루덴)의 로봇 개발자 브리스는 "우리 로봇은 평평한 표면에서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돼있는데 이곳 바닥은 울퉁불퉁해 재빨리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했다"며 "로봇다리에는 36개의 센서가 작동 중이라 민감한 장애물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라운드는 로봇들의 흥겨운 댄스 무대였다.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로봇들은 배경음악에 맞춰 팔을 위로 치켜드는가 하면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다리를 굼뜰거리는 등 동작으로 어색하지만 깜찍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무대는 로봇들의 전투였다. 긴 속눈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여성 로봇 프라스코비아는 상대 로봇을 맞아 저돌적으로 돌진하는가 싶더니 이내 제자리에 멈춰서 관중들을 당황하게 했다. "왜 움직이지 않느냐? 고장 난 것 아니니?"는 관중들의 야유에 프라스코비아의 개발팀인 '마미'는 "기다림 전략"이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이어진 라운드에서 프라스코비아는 초반부터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뒤쫓아온 상대 로봇은 때를 놓칠세라 재빨리 공격했다. 결국 남성 로봇 마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마미팀은 "로봇들의 전투가 생각보다 치열했다"며 "오늘 무대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다음 경기에서는 보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metro France

초호화 자연마을 10년후 완공목표 파리외곽에 조성

파리에서 동쪽으로 30㎞ 떨어진 센에마른주에 대규모 자연 마을이 조성된다.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16년 봄 관광객들에게 처음으로 건설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1600여 개의 숙박시설이 조성될 자연 마을은 파리 외곽에 위치한 디즈니 랜드와 근접해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회는 지난 21일 자연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 4000만 유로(약 574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회가 제공하는 투자비는 주변 도로 건설 및 자연마을을 상징하는 '지열 호수'를 만드는 데 쓰인다. 지열호수는 2500㎡에 이르는 호수로 지열을 통해 30도를 유지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방 의회의 사회당 의장 장폴 우숑은 "자연마을 사업은 앞으로 다가올 15년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16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센에마른주의 환경론자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사치스러운 관광을 위한 값비싼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은 600만 유로(약 86억원)에 그치는 반면 인공 호수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반대 여론이 크지 않을 경우 공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현장에선 지난여름부터 예비 공사가 시작된 상황. 다음달 31일부터는 투자금 확보를 위해 부동산 구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모집한다.

살인마 연기 원없이 했다… 소년 이미지 싹 지웠다

영화 '더 파이브' 온주완

배우 온주완(30)은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부드러운 얼굴선 덕인지 소년 같은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14일 개봉한 영화 '더 파이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완벽히 지워내는 데 성공했다. 극중 냉혹한 연쇄살인범을 연기한 그는 연기는 물론 외모에서까지 놀라운 변화로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 매력적이지만 광기 넘치는 '악마'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이 영화는 은아(김선아)가 남편과 딸을 죽게 한 연쇄살인범을 심대로 자신의 장기를 담보로 내걸고 다섯 명의 조력자를 모아 복수에 나서는 내용이다. 웹툰을 제작한 정연식 작가가 직접 각색, 감독을 맡은 작품이다.

온주완은 이 영화에서 소녀들의 뼈로 인형을 만드는 연쇄살인범 재욱을 연기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인 데다 외모도 매력적이지만 속은 광기 넘치는 예술혼에 불타는 재욱은 기존 한국 영화에서 그려지던 연쇄살인범과 달랐다.

"사실 실존인물은 없는 인물이죠. 만화적인 요소가 강한 편이라 참고할 만한 다른 작품도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사람을 이용해 향수를 만드는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향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해 분위기만 참고했죠. 기존 인물을 모방한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표현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재욱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성공해 낸 그는 "재욱을 매력 있게 스크린에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을 깰 자신도 있었다"면서 "그런 자신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덤비지 않았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같은 자신감과 의지력은 온주완의 캐스팅을 반대했던 제작자인 강우석 감독의 마음을 돌렸다. 온주완을 알지 못했던 강 감독은 재욱 역에 다른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주완은 연기 생활 10년차인데도 직접 오디션을 자청했고 [illegible] 과 표현력으로 담담히 배역을 따냈다.

"갈망했지만 쉽지 않았던 배역을 해냈을 때 은 쾌감은 대단했죠. 자신감도 더 붙었고요. 보통 한 작품을 찍고 나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이번 영화만큼은 원 없이 노력했고 연기했기에 아쉬움이 적어요."

> 배역 몰입하다 성격 날카로워져
> 틈나는대로 털어내야만 했어요
> 한계단씩 천천히 성장할겁니다 ”

 # 데뷔 9년차 배우 – 존재감 알려

배역에 100% 몰입하다 보니 카메라에서 벗어났을 때도 냉혹하고 광기 어린 재욱의 감정이 남아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집에서 연기 연습을 하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졌고, 점점 성격이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재욱의 감정을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감정을 사회로 가지고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친구들을 자주 만나 넋두리를 쏟아냈죠. 주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연기와 실생활은 다르다는 것을 자연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배역에 몰입한 건 상대역인 김선아도 마찬가지였다. 김선아는 촬영장에서 자신의 배역에 집중하기 위해 온주완과 일부러 거리를 뒀다. 온주완은 "선아 누나가 영화 시사회 때도 은아의 감정이 떠오르는지 울더라"면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더 친해졌다"고 말했다.

2004년 영화 '발레교습소'로 데뷔해 '피터팬의 공식' '사생결단' '해부학교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지만 대표작은 없던 온주완은 이번 영화로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별을 날리듯 툭툭… 서두르지 않고 한계단 씩 올라왔다. 크게 욕심내진 않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더 파이브'라는 계단을 올라야 했다"면서 다시 다음 계단에 오를 채비를 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올댓시네마(왼쪽) 디자인/박은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 애(愛)' '존경 경(敬)'
'애경'이란 이름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애경

화려하진 않지만 팽팽한 긴장

film review

■열한시

28일 개봉한 '열한시'는 국내 영화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타임스릴러 장르다.

시간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연구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24시간 뒤의 미래에서 가져온 폐쇄회로(CC)TV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시간을 추적해나간다는 이야기다. 연구원들은 죽음을 막으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어긋난 행동이 점점 예정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동안 '닥터 진'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 등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많았지만 영화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도만으로 주목할 만하다. 관객들이 '백 투 더 퓨처' 시리즈 등 대작들로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시간여행 소재는 거대한 스케일을 구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 할리우드 영화의 전유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일단 이 영화는 적은 예산이라는 핸디캡을 안고서도 아찔적인 분위기로 시간을 긴장감 있게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칫 복잡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를 뒤나바꿔가 맞물리도 연결하는 시나리오 구성도 탄탄한 편이다. 또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예정대로 흘러가는 미래와 자신이 살고자 상대를 희생시켜야 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처한 연구원들의 행동을 통해 거대한 운명 속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 선과 악의 판단 등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배우들의 연기도 크게 흠잡을 곳이 없다. 시간 이동에 집착하는 천재 물리학 박사 우석 역을 연기한 정재영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서서히 변해가는 감정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우석과 대립하는 지완 역의 최다니엘과 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CCTV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영은 역의 김옥빈도 충실히 제 몫을 해냈다. 물론 이 영화는 한정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스케일 면에선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 심해에 위치한 연구소의 전경에는 세밀함이 없고 과학적인 고증을 거쳐 디자인됐다는 타임머신은 식상하다. 공간이 연구소 한 곳으로 집중된 만큼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볼거리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SF가 아니라 단지 시간 이동을 소재로 했을 뿐인 스릴러 장르라는 점에 방점을 놓고 본다면 색다르고 긴장감 있는 스릴러물 한 편이 탄생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 보르코시건 시리즈 ★

명예의 조각들

베스트 글·그림 이기

지금이다! 명상 주사기를 작동하도록 해
걸려들었습니다! 베타함선 홀로그램쪽으로 방향을 돌리는군요
이제 주사기를 날려버리도록. 이 장치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넘겨줘선 안된다는 명령이 있었다!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김우빈 영화·드라마 쌍끌이 흥행

'친구2' 250만 관객 돌파
'상속자들' 시청률20% 1위

배우 김우빈(사진)이 영화와 드라마로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우빈이 주연한 영화 '친구 2'가 개봉 14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50만 관객을 넘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4일 개봉한 이 영화는 27일 하루 동안 5만6979명의 관객을 동원해 일일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250만6759명이다.

안방극장에서도 반항아 캐릭터로 승승장구 중이다. SBS 수목극 '상속자들'에서 재벌가 자제 영도 역을 맡은 그는 짝사랑 중인 은상(박신혜)에게 악동처럼 짓궂게 대하다가도 순간순간 '돌직구'로 마음을 표현하는 '상남자'의 매력으로 '영도앓이' 를 일으키고 있다. 이 드라마는 20%가 넘는 시청률로 독주하고 있다.

최근 모델 유지안과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흥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위기다. 김홍선 감독의 영화 '체크 메이트'의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고, 이외에 여러 작품과 광고 출연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탁진현기자

데미무어·애쉬튼 커처 이혼

할리우드 스타 데미 무어(사진 왼쪽)와 애쉬튼 커처(오른쪽)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7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데미 무어와 애쉬튼 커처의 이혼 소송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의 스콧 고든 판사는 커처가 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열여섯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부부가 돼 화제를 모은 이들은 2011년 11월 커처의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별했다. 커처는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3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해 소송이 길어졌다고 AFP는 전했다.

한편 미국 연예 매체 TMZ는 이번 이혼으로 커처가 '프렌즈 위드 베네핏' '블랙 스완' 등에 출연한 배우 밀라 쿠니스와 결혼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성훈기자 ysk@

美 홀린 '콘솔의 진화'… 한국도 플레이?

최근 출시된 PS4·엑스박스원 북미서 판매 돌풍
온라인·모바일 게임 익숙한 국내서 통할지 '의문'

거정용 게임기인 콘솔의 인기 선풍이 뜨겁다.

지난 18일 소니가 북미에서 선보인 플레이스테이션(PS4)(왼쪽 사진)은 출시 하루 만에 100만 대가 팔렸다. 일주일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엑스박스 원'(오른쪽) 역시 24시간 만에 100만 대가 팔려 무승부를 기록했다. 업계는 최대 500만 대 판매를 확신하고 있다.

두 기기는 게임은 물론 TV와 연계해 영화를 보고 컴퓨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기기로 진화했다. 엑스박스 원의 경우 스카이프 통화 기능을 추가해 말 그대로 홈 엔터테인먼트 허브 역할을 한다.

그런데 두 제품이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소니가 다음달 17일 PS4를 49만8000원에 출시하기로 확정했다. 엑스박스 원은 아예 해를 넘긴다. 빨라도 내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한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콘솔게임기는 국내에서 그다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게임과 PC방 환경이 콘솔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다수의 유저가 서로 소통하며 플레이하는 이른바 '열린 플레이'라면, 콘솔은 혼자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2~3명이 즐기는 '닫힌 플레이'가 특성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들은 게임을 하더라도 소통이 병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아울러 모바일게임이 대중화하고 있는 것도 콘솔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가장 뛰어난 스마트 기기가 게임을 점하는 첫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유럽과 한국의 게임 문화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콘솔게임을 '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해외에서는 온 가족이 즐기는 여가 문화로 생각한다.

게임 유저의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온라인게임에서 만끽했던 화려한 영상과 그래픽, 극장을 방불케 하는 실감 나는 사운드, 질리지 않는 스토리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확장성이 낮은 콘솔 기기에서 이같은 만족감을 얻기는 어렵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PS4와 엑스박스 원이 7년 만에, 그것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와 콘솔이 부활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온라인게임의 완성도, 모바일게임의 편리함을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구글 '음성검색' PC서도 된다

말로 검색을 하는 구글의 '음성검색 핫워드' 기능이 PC에도 들어간다. 이 기능은 모바일용 안드로이드 4.4 '킷캣'에는 기본으로 포함됐으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으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다.

구글은 28일 크롬 웹 스토어를 통해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기능(익스텐션)인 '구글 음성검색 핫워드' 베타 버전(http://goo.gl/PdVTZM)을 배포 중이다.

화면, 버튼, 키보드 등을 누르지 않고 곧바로 음성 인식이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이 기능은 크롬에서만 실행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애플도 시리와 같은 유사 기능이 있으나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고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서만 구동된다는 한계가 있다. /박성훈기자

'포코팡' 구글플레이 5위에

인기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이 구글플레이 매출 5위에 올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트리노드가 개발한 포코팡이 지난 27일 기준 구글플레이 매출 톱 5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사업센터장은 "포코팡은 일일 사용자가 3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활발한 콘텐츠 업데이트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인기몰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코팡은 오는 29일 출시 50일을 기념해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수단인 '젤리' 제공 등의 이벤트를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 감동이야 LG전자가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HBS 800)'를 23일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G 톤 플러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든 IT기기와 연결이 가능하며 다중 접속 기능을 적용해 2개의 기기와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다. /LG전자 제공

클래식 보는 '멋' 디지털 찍는 '감'

니콘 DSLR 'Df' 매진 행진

클래식의 감성에 디지털의 성능을 더한 니콘의 FX 포맷 DSLR 'Df'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학기기 전문기업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지난 19일부터 진행한 Df의 예약 판매에서 준비한 물량이 매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약 판매는 Df 출시 기념으로 니콘 공식 매장을 비롯한 전국 23개 매장에서 진행됐으며 초도 물량 100대를 포함해 추가로 확보한 물량 30대까지 모두 매진되는 등 총 130대가 판매 완료됐다.

Df는 니콘 FX 포맷 DSLR 카메라 중 가장 작고 가벼우며 직관적 다이얼로 조작성이 한층 강화된 제품이다. 플래그십 모델인 D4와 동등한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와 화상처리 엔진을 탑재했으며 기계식 노출계 연동 레버를 채용해 필름 카메라 렌즈도 장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Df는 28일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보디 기준 328만원이며 렌즈가 포함된 가격은 358만원이다.

/이국명기자 kmlee@

꼼꼼IT리뷰 - 와콤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

필압 느끼는 모바일 터치펜 '섬세'

터치스크린 시대, 손가락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은 터치펜이 해결한다.

와콤의 최신품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는 모바일 터치펜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필압이다. 펜에 가해지는 압력 감지 특수 공법은 그림의 농묵, 글씨의 다양한 효과를 연출하게 한다. 실제로 태블릿 PC 위에서 그림을 그려보니 붓글씨를 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 펜에 힘을 줬다 빼니 그러데이션 효과도 표현이 가능했다.

터치펜은 손가락을 쓰는 것보다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원하는 글씨를 쓰는 데 입력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돌발 상황도 벌어진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러스는 엇박자가 별로 없었다. 글씨와 그림을 원하는 대로 주밀 수 있었다. 액정 위에서 안정감 있게 선이 그어져 비뚤어지거나 밀리는 증상도 없었다.

다만 아주 섬세하거나 가느다란 느낌을 살리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일반인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조작법도 간단하고 휴대하기 편리했다. 아이패드에 최적화된 점은 조금 아쉽다. 가격은 10만원대 중반. /유동희기자 unique@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무상AS 1년으로 연장

앞으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1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에 관계없이 (배터리의) 무상 서비스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 연장은 부풂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제조사 이렌텍이 만든 갤럭시S3의 배터리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자 내년 12월까지 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자 배터리 AS 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생기는 부풂은 수명 말기에 도달해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이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팝 가수 '화끈한 분풀이'

日 연말 음악 프로 출연배제에 보란듯 오리콘 톱 5 무더기 진입

일본의 연말 주요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전면 배제된 K-팝 가수들이 분풀이하듯 오리콘 톱 5에 무더기로 진입했다.

빅뱅의 지드래곤(사진 오른쪽)은 27일 발표한 일본 솔로 데뷔 앨범 '쿠데타'로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하루에만 3만4597장이 팔려나갔으며, 이는 2011년과 지난해 빅뱅이 일본에서 발표한 앨범 '승리'와 대성이 일본에서 출시한 솔로 앨범의 하루 판매량을 넘어선다.

현지 음반 관계자들은 "지드래곤의 솔로 데뷔 앨범이 지금까지 발매된 빅뱅 관련 작품들의 오리콘 주간 최다 판매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앨범에는 9월 국내에서 발표한 정규 2집 '쿠데타'의 9개 수록곡들을 비롯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앨범 '원 오브 어 카인드', 2009년 솔로 데뷔 앨범 '하트 브레이커'에 포함된 노래들이 총망라됐다.

지드래곤은 올해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진행한 4대 돔투어의 실황 DVD를 20일 출시해 DVD 종합 주간차트 3위를 기록했다.

동방신기(왼쪽)는 27일 일본에서 출시한 새 싱글 '베리 메리 X마스'로 하루에 7만7831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싱글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5인조 활동을 마감한 카라는 27일 싱글 '프렌치 키스'와 앨범 '베스트 걸즈'를 동시에 발표해 각각 싱글과 앨범 일간차트 4위에 올랐다.

인피니트는 첫 번째 일본 아레나 투어의 실황을 담은 DVD를 이날 발표해 DVD 종합 일간차트 2위를 차지했다.

/[illegible] suno@metroseoul.co.kr

우울한 '비'

'군 복무규정 위반' 고소장 검찰수사… 연예활동 제동

비(사진)가 군 복무 시절 문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복무 당시 군의 복무규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은 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율을 어기는 등 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논란은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서 비는 군복을 입고 군모는 쓰지 않은 채로 거리를 걷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15개월 동안 연예병사로 복무하면서 일반병사의 휴가 일수보다 많은 휴가와 외박을 나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본인과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는 다음달 초 할리우드 복귀작인 영화 '더 프린스' 촬영에 들어가며 내년 1월 새 앨범을 발표한다. /[illegible]

3색 X-마스 앨범 '감동 3배'

'아메리칸 아이돌' 스타 켈리 클락슨 등 다양한 장르 음반 출시

켈리 클락슨 / 수잔보일 / 조슈아 벨

세계적인 오디션 출신 스타와 클래식 아티스트가 다양한 색깔의 크리스마스 앨범으로 따뜻한 감성 선물을 선사한다.

'아메리칸 아이돌'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인 켈리 클락슨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 '랩트 인 레드'를 발표했다. 타이틀곡 '랩트 인 레드'를 비롯해 캐롤계의 스탠다드 가수인 마라이어 캐리를 겨냥한 듯한 '언더니스 더 트리', 클락슨 특유의 절절한 음을 들을 수 있는 '에브리 크리스마스', 싱그러운 건반과 오케스트라 편성이 결합된 '윈터 드림스' 등이 수록됐다.

영국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 출신으로 전 세계에 2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수전 보일은 크리스마스 앨범 '홈 포 크리스마스'를 발매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성을 사후 녹음해 듀엣곡으로 복원한 '오 컴 올 예 페이스풀'을 비롯해 또 다른 듀엣곡 '웬 어 차일드 이즈 본', 수전 보일이 조연으로 출연하는 영화 '크리스마스 캔들'의 OST '미러클 힘' 등이 수록됐다.

바이올린의 시인 조슈아 벨은 새 앨범 '뮤지컬 기프트 프롬 조슈아 벨 앤드 프렌즈'를 출시했다. 이번 음반은 전설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재즈 피아노의 거장 칙 코리아, 라틴 댄스의 여왕 글로리아 에스테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해 팬들에게 보내는 음악 선물이다.

크로스오버 연주 그룹 피아노 가이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 '어 패밀리 크리스마스'를 내놓았다. 앨범에는 기존 크리스마스 음악을 재해석한 10곡과 피아노 가이즈가 만든 창작 음악 2곡이 수록됐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트로트 버전으로 돌아온 '슈퍼스타K'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가 트로트 버전으로 새롭게 돌아온다.

28일 엠넷은 "작곡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히트' 후속으로 2014년 트로트 프로그램 '트로트 엑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3월 방송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트로트 엑스'는 '슈퍼스타K'(시즌2~4) '재용이의 순결한 19' '꽃미남이몽사태' 등을 연출한 김태은 PD가 연출을 맡는다.

한편 '트로트 엑스'는 다음달 2일 일반인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준비를 준비한다.

/정성욱기자 ysw@

박한별 '레드의 유혹' 박한별이 주위를 놀라게 하는 강렬한 레드 언더웨어 자태를 선보였다. 한 언더웨어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판타지 레드 룩' 콘셉트로 화보를 촬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르셋 라인이 쉬운 앉거나 눕는 자세를 취해도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로 섹시한 매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 한결같은 몸매네요 /유순호기자

star bag

자원봉사 컴패션그룹 2집

자인포 심태윤을 비롯해 연예계와 각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밴드 컴패션밴드가 2집 '그의 열매'를 발표한다.

2007년 11월 출시된 1집 '사랑하기 때문에' 이후 4년 만에 나온 앨범이다. 가난에 꿈을 잃은 어린이들을 함께 노래하는 이들의 마음을 담았다. 다음달 12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2집 발매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세 곡을 부른다.

'감격시대' 김현중 짝사랑녀

신인 배우 백누리가 KBS2 새 수목드라마 '감격시대'에 캐스팅됐다.

그는 김현중을 짝사랑하는 소녀 양양 역을 맡아 깜찍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도와준 신정태(김현중)를 짝사랑하게 되는 철부지다. 백누리는 지난해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친애하는 당신에게' 등을 통해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과 신선한 이미지로 관심을 받았다.

'황제를 위하여' 주인공 발탁

배우 박성웅이 액션 누아르 '황제를 위하여'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부산을 배경으로 거친 사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영화에서 그는 사채업과 도박판을 주름잡는 황제캐피탈의 보스 상하 역을 맡았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냉혈한이지만 조직의 식구들만은 의리와 신뢰로 이끄는 인물이다. 이민기가 추락한 야구선수 이환으로, 이태임이 숨진 여사장 연수 역으로 출연한다.

김우빈·이미숙과 한솥밥

배우 한은정이 김우빈·이미숙과 한솥밥을 먹는다.

한은정은 1999년에 미스 월드 퀸 유니버시티로 데뷔했으며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 '풀하우스' '신데렐라맨' '구미호 여우누이뎐', 영화 '가생령' '신기전'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차기작 선정에 고심 중이다.

최강 스케일! 막강 캐스팅!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의 귀환!

주크박스 플라잉 어드벤처

뮤지컬 구름빵 시즌3

새로운 친구들과함께 돌아온

뮤지컬 구름빵 시즌3!

빵빵한 조기 예매 이벤트!

12월13일까지 예매 시, 전좌석 50%할인 적용!

구름빵이 마련한, 빵빵한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14.01.10 ~ 01.26 국립극장|해오름

평일 11시, 2시 / 주말,휴일 11시,2시, 4시30분 / 매주 월요일 쉼

예매문의 1661-0960 인터파크티켓 1544-1555 국립극장 02)2088-4114

뮤지컬 구름빵

갖고싶던 '잇 뷰티'만 모았네

연말맞이 한정판 풍성
인기상품만 세트 구성
개별 구매보다 저렴해

뷰티 업계가 화려한 연말 분위기에 활을 실어줄 홀리데이 한정판을 쏟아내고 있다. 시즌에 어울리는 특별한 향과 아기자기한 패키지로 구성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격이다.

더바디샵은 2013년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선보였다. '크랜베리 조이', '바닐라 블리스', '진저 스파클' 등 총 3가지 컬렉션을 포함, 다양한 기프트 세트로 구성했다. 이들 제품은 보디케어 제품부터 디퓨저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갖췄으며, 3가지 컬렉션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기부된다.

필로소피는 크리스마스 일러스트가 돋보이는 틴케이스 2종과 히트 아이템만 담은 베스트 키트 3종 등 총 20종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베네피트는 올 한 해 가장 인기를 끈 베스트 제품을 하나로 모아 '잇츠 어 러브 페스트', '러브 미 브라이트' 등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3종을 내놨다. 인기 제품 4종을 묶어 정품을 따로 구매할 때보다 약 40% 저렴하다. 코리아나화장품의 메이크업 브랜드 글램3의 '듀얼 비폼 립글로스'는 건조한 입술을 촉촉하게 가꿔준 '로맨스 퍼퓸 핑크 립글로스'와 프루티 플로럴 계열의 향수 '로맨스 듀얼 퍼퓸'을 담았다.

SK-II는 스와로브스키 엘리먼츠와 협업을 통해 'SK-II 피테라 에센스 한정판'을 출시한다. 병은 SK-II의 상징인 버건디 컬러에 크리스털 커팅 기법인 실리온 커트 프린팅으로 장식해 소장 가치를 높혔다. 크리스털로 장식된 손거울도 함께 준다. /박지원기자

코치·DKNY 등 명품향수 12종 균일가 이벤트

에스티로더 화장품 그룹의 아라미스 & 디자이너 향수 사업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9일부터 디자이너 향수 판매세일을 진행한다.

참여 브랜드는 코치·도나카렌뉴욕(DKNY)·토미 힐피거 등이며, 제품 종류는 12종이다. 30㎖ 용량 향수 제품을 각 지점 100개 한정으로 2만9000원 균일가에 판다.

행사는 29일부터 3일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12월 2일부터 4일간 AK플라자 분당점, 12월 6일부터 사흘간 현대백화점 신촌점 등에서 각각 진행된다. /박지원기자

아빠! 술 한잔 전 우유 한잔

우유는 숙취예방 음료

알코올 분해성분 풍부해
간의 해독작용 도와주고
뮤신·비타민A·유지방이
위벽 보호하고 염증예방

회식과 모임이 많은 연말이면 술자리도 잦아진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자리에 숙취로 고생하는 직장인이 많다.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인디언들은 오래전부터 숙취를 예방하는 음식으로 아몬드를 먹었다. 아몬드에는 간을 활성화시키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

음주 전 우유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간이 알코올 독성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필수적인데 우유에는 이 성분들이 풍부해 간 해독 작용을 돕는다. 더불어 우유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위액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뮤신'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우유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탄산수소이온은 뮤신과 함께 위산으로부터 위장 점막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공복감은 덜 느끼고, 그만큼 과음과 과식이 유혹을 덜 받게 된다.

◆속쓰림 등 위장 질환에 효과적

최근 스트레스로 속쓰림·소화불량·위궤양·위염 등 위염을 앓고 있는 직장인 역시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위질환은 심각할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유는 산을 중화시키는 완충 작용을 통해 위벽을 보호한다. 또 우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위 점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위에서 점액이 잘 생성되도록 도와 염증을 막아준다.

유지방 역시 위 속의 산과 점막 조직 사이에 물리적인 피막을 형성해 위 점막을 보호한다. 적은 양이더라도 우유를 계속해서 섭취하면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위염 환자도 하루 2잔 도움돼

하지만 우유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음식물을 섭취한 후 마시는 것이 좋다.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유를 조금씩 여러 번 마셔 위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염 환자는 성인 권장량과 동일한 양인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하며, 위궤양 환자는 약물치료 3주 후부터 우유 마시기를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말에는 다양한 모임 때문에 다이어트나 절주 등의 계획이 무너지기 쉽다"면서 "연일 이어지는 연말 모임과 평소 잦은 회식으로 위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우유로 위 건강은 물론 숙취 걱정까지 해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겨울에 끌리는 사랑의 맛 '카카오 스무디'

겨울 하면 떠오르는 핫 다크초콜릿 한 잔. 중독성 있는 달콤 쌉싸래한 맛으로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크초콜릿은 최근 다양한 영양 성분까지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크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암·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스트레스 등에 효과가 있으며, 초콜릿에는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질인 '페닐에틸아민'이 풍부해 우울함을 치유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적당량 즐기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크초콜릿이 소비자들의 손길을 유혹하고 있다.

글로벌 넘버 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대표 김성완)은 스무디킹의 국내 판매 1위 베스트셀러 제품인 '스트로베리 익스트림 스무디'를 모디브로 해 겨울에 어울리는 카카오를 더한 '카카오 익스트림 스무디'를 선보이고 있다.

겨울 시즌 한정 메뉴인 카카오 익스트림 스무디는 진한 카카오의 맛과 영양을 상큼한 스트로베리와 함께 더욱 고급스럽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익스트림 스무디다. /정경호기자

오늘 aT센터서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농림축산식품부는 29~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는 '2013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장에는 전국 및 지역 공동 브랜드 등 유명 브랜드를 전시하는 '과일브랜드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첨단시설·장비로 과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과일전문APC관'이 개설된다.

부대 행사로는 29일 과일요리 경연대회가 열려 사전에 공모한 레시피 중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을 치르며 현장 요리경연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상 등 4팀을 시상한다. 30일에는 유명 요리사인 이연파 씨를 초청해 이야기가 있는 과일 요리를 시연, 시식하는 쿠킹 클래스를 펼친다.

홈파티 바텐더, 나야 나!

칵테일 레시피 따라하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송년 모임이 시작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집에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오붓하게 즐기는 홈 파티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연말 분위기를 살려주는 특별한 파티를 위해서라면 칵테일이 제격이다.

◆여자친구들끼리 싱글 파티엔 크랜베리 칵테일

요즘 각광받는 칵테일 '코스모폴리탄'은 보드카를 베이스로 해 크랜베리 주스와 라임 주스를 첨가해 만드는 칵테일이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칵테일 중에는 크랜베리 주스를 넣은 종류가 많다. 예쁜 붉은 빛깔과 새콤달콤한 맛 때문인데 다양한 주종과 어울리기 때문에 홈 파티를 위한 칵테일을 만들 때 활용하기 좋다. 크랜베리 진 피즈(사진)는 얼음을 채운 잔에 약 50㎖의 진(Gin)을 넣고 레몬즙 2스푼을 섞은 뒤 크랜베리 주스와 탄산수를 취향에 맞게 넣으면 완성된다.

◆온 가족 다 함께 즐기는 무알코올 펀치 칵테일

가족 동반 모임이라면 무알코올 칵테일이 적합하다. 이때 다양한 과일 토핑으로 눈과 입이 함께 즐거운 크랜베리 펀치를 추천한다. 냉장고에 있는 남은 과일을 활용하기에도 좋다. 만드는 방법은 얼음을 넣은 넓은 볼에 크랜베리 주스 약 1ℓ와 오렌지 주스 1컵을 섞고 탄산수 2컵을 넣어 청량감을 더한다. 여기에 오렌지, 사과, 포도 등의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띄워주면 풍성한 느낌의 크랜베리 펀치가 완성된다.

◆어른들 모임엔 전통주 칵테일이 제 맛

어른들만의 송년 모임이라면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도 잘 어울린다. 국순당 백세주와 사과 주스를 2대1의 비율로 섞고, 여기에 유자청과 꿀을 적당량 넣어준 뒤 얼음을 몇 조각 띄우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칵테일이 완성된다.

또 막걸리와 사이다를 7대3 정도로 섞고, 홍삼액 제품을 조금 넣어주면 건강에도 좋은 홍삼 막걸리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 /장병철기자

라떼차 '3000원 균일가전' 손짓 올겨울에 대표 먼기 차로 떠오르고 있는 라떼차는 전년보다 113%의 매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인기 라떼차 3000원 균일가전을 한다.

반갑다! 무한리필 카페

카페 큐브-음료 메뉴 무료
테이크 어반-빵뷔페 매장
더 페이머스램-커피 맘껏

최근 '무한 리필'을 내세운 이색 콘셉트의 카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눈치를 주지 않고 무한으로 음료까지 즐길 수 있는 스터디 카페부터 빵 순이들을 위한 무한 빵 리필 카페, 어떤 음료를 마셔도 무제한으로 드립커피를 리필해주는 곳까지 등장했다.

1·2호선이 만나는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아카데미의 '카페큐브'는 최근 도서관의 답답함을 벗어나 스터디 공간을 찾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업무를 하는 코워스족(1인 창업자, 강사, 저자,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주목을 받고 있다.

회원제 라이브러리 카페인 이곳은 500여 권의 전문·신간 서적이 비치돼 있고, 15층에 위치해 확 트인 스카이 뷰와 고급 원두커피 등 음료가 무료로 제공돼 학업과 독서·업무 이외에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아카데미의 '카페 큐브'

빵 뷔페로 불릴 만큼 다양한 빵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다. 신논현역에 위치한 카페 '테이크 어반'은 음료 가격에 1000원(주말 1500원)만 추가하면 빵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마일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은 오전 8시~9시30분, 공휴일 및 주말은 오전 8~10시 영업한다. 올리브빵·치아바타·모닝빵·잉글리시머핀 등 7~8가지의 다양한 빵을 맛볼 수 있다.

드립커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홍대 인근 카페 '더 페이머스램'도 인기다. 이 곳에선 꼭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복숭아 콘 레체 등의 음료를 마시고 커피 리필을 원하면 직접 내린 드립커피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

/김민정기자 ...@metroseoul.co.kr

삶 바꾸는 '엄마의 지혜' 청호나이스

생활가전 최초 1분 TV광고

청호나이스는 생활가전 업계 최초로 1분 소재의 TV 광고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엄마의 지혜'를 콘셉트로 하는 이번 광고는 한 가족의 일상생활에 기존 15초 광고에선 충족하기 힘들었던 청호나이스의 다양한 제품을 담아내 1분의 영화 형태로 제작됐다.

조희길 마케팅본부장은 "청호나이스 창립 20주년을 맞아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청호나이스의 다양한 제품과 장점들을 소개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의 겨울 광고 '엄마의 지혜' 편은 다음달 1일 온에어되며 앞으로 지상파·종편·케이블·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리복 '윈터 재킷' 열 샐틈 없네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윈터 재킷 컬렉션'을 선보였다.

피트니스 라인의 'RF 메비 구스다운 재킷'은 안감에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원단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이고, 겉감에는 플레이실드 기능성 원단을 써 발수·방풍 기능을 강화했다. 색상은 골드·캔버스, 레드·블랙, 블랙 등이 있다. 가격은 39만9000원. 남성용 버전으로 'DST 익스트림 구스다운 재킷'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가격은 47만9000원.

클래식 라인의 'GL 롱 다운 재킷'은 야상 스타일로 가격은 29만9000원이다. 문의 shop.reebok.co.kr (02)508-2606 /박지원기자

코레일관광개발 장관상

제2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

코레일관광개발(대표 이건태)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광개발은 신성장 사업과 고객감동 경영, 차별화된 관광 상품 운영 등의 경영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대기업 부문 장관상 수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재철기자

선수 끌어안는 LG, 선수 밀어내는 두산

한 지붕 라이벌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는 12년 만에 가을잔치에 진출해 잠실을 뜨겁게 달궜고, 두산은 4위로 포스트 시즌에 턱걸이했지만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하며 '미러클 두산'의 저력을 보여줬다.

2013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서 똑 같이 기쁨과 아쉬움을 맛본 두 팀이 극과 극의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한지붕 라이벌 두 팀 스토브리그 '극과 극' 행보

이병규 권용관

이병규·권용관 등 재계약 팀워크 다지며 내실 중점

◆LG 믿음의 야구 팀워크 다져

성공적으로 올 시즌을 보낸 LG는 어느 때보다 내실을 다졌다. LG는 자금력이 있지만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는 적극적인 영입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 반면 기존 선수들과 재계약하며 팀워크를 보다 끈끈하게 만들었다.

캡틴 이병규(등번호 9번)와 3년간 총액 25억5000만원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게 최고령 FA라는 타이틀을 안겼다. 권용관과도 비록 1년이지만 계약했다. 불과 1년 전까지 방출 선수였던 그이기에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처럼 선수들과 구단의 믿음이 쌓여가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LG에서 FA 4년 재계약을 맺은 정성훈과 이진영은 LG의 믿음에 화답하듯 최근 2년 연속 3할을 때렸고,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꾸준히 팀에 공헌하고 있다.

이종욱 김선우

이종욱 포함 주전 대이탈 준우승 감독마저 경질돼

◆두산 릴레이 이탈 분위기 싸늘

포스트시즌까지만 해도 절정으로 끓어오르던 두산의 분위기는 싸늘히 식었다. 두산은 팀의 주전 선수들을 떠나보낸 데 이어 전여 임기 1년의 김진욱 감독을 경질시켰다. 그야말로 두산의 행보는 야구업계의 '트러블메이커'로 떠올랐다.

두산은 이종욱, 손시현(이상 NC), 최준석(롯데)을 FA로, 임재철(LG), 김상현(KIA), 이혜천(NC)을 2차 드래프트로 떠나보냈다. 25일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두산 약진의 상징 중 하나였던 김선우를 방출했다.

특히 팀을 한국시리즈까지 진출 시킨 김진욱 감독 경질은 화룡점정을 찍었다. 역대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를 통틀어 이 정도로 단기간에 한 팀을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는 드물었다. '영원한 강팀의 팀'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냉정하고 차갑다는 인상을 팬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물론 신임 사령탑인 송일수 감독에 거는 팬들의 기대감도 크다. 분석력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프로야구에서 활동해 올해 두산 2군 감독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제2의 김성근'을 예고하고 있다. 내실 다지기에 나선 LG의 체질 개선에 나선 두산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후 팀 성적과 선수들 성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성욱기자 yssel@metroseoul.co.kr

"벨트란보다 추신수가 낫다"

뉴욕 언론 "양키스 계약하면 5년간 957억 받을 것"

뉴욕의 스포츠 매체가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인 추신수(31·사진)의 뉴욕 양키스행을 전망했다.

양키스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스 네트워크는 28일 "추신수가 양키스와 계약한다면 5년 9000만 달러(약 957억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신수는 거액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외야수"라고 보도했다.

예스 네트워크는 올해 세인트루이스를 월드시리즈로 이끈 FA 카를로스 벨트란(36)과 비교하며 추신수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이 매체는 "추신수는 올해 0.423의 출루율을 기록했다. 빠른 발과 힘을 갖췄고 가장 큰 장점은 출루다. 양키스는 출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파악했다.

51경기의 포스트시즌을 소화한 벨트란에 비해 추신수는 큰 경기 경험이 부족한 점은 추신수의 단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외야 수비가 뛰어나고 어느 타순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등 젊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벨트란과 3년 계약을 하는 것보다 추신수와의 5년 계약이 더 안정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순호기자 suno@

손흥민 챔스리그 또 빈 손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이 70분간 활약한 레버쿠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0-5로 대패했다.

28일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5차전 레버쿠젠과 맨유와의 경기에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해 70분 동안 뛰었지만 득점 없이 교체됐다. 패배로 승점 7점(2승1무2패)을 기록한 레버쿠젠은 샤흐타르 도네츠크(2승2무1패·승점 8점)에 뒤져 조 3위로 밀려났다. 자력 16강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레버쿠젠은 마지막 6차전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승리하더라도 맨유와 샤흐타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맨유는 3승2무 승점 11점으로 6차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손흥민이 28일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맨유 에브라(오른쪽)를 상대로 슛 기회를 엿보고 있다. /레버쿠젠 연합뉴스

/정성욱기자

28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 LG 대 원주 동부의 경기에서 LG 김종규가 동부 김주성보다 먼저 리바운드 볼을 낚아채고 있다. /연합뉴스

LG, 동부 꺾고 파죽의 3연승 달려

'슈퍼루키' 김종규 골밑 활약 앞세워 단독 2위 올라

프로농구 창원 LG가 '슈퍼루키' 김종규의 골밑 활약을 앞세워 3연승을 내달렸다.

LG는 28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원주 동부를 70-54로 이겼다.

이로써 최근 다섯 경기에서 4승1패를 기록한 LG는 선두 서울 SK(14승4패)와의 승차를 1.5경기로 줄여 단독 2위에 올라섰다.

LG는 1쿼터부터 양우섭이 7득점을 뽑아내고 김종규가 림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공중에서 덩크슛으로 연결하는 등 맹공을 펼쳐 21-7로 기선을 잡았다.

동부는 2쿼터에서 김종규의 큰 키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 김주성의 활약에 힘입어 23-35로 추격했다. 4쿼터에는 7점 차까지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LG는 경기 종료를 앞두고 문태종과 김종규의 연속 득점이 이어지며 동부의 추격을 뿌리쳤다.

이날 LG에서 크리스 메시는 18점, 12리바운드, 7어시스트, 김종규는 15점, 7리바운드로 선전했다.

24일 SK를 꺾고 12연패에서 탈출한 동부는 이번 경기로 인해 5승14패를 기록하며 다시 최하위로 밀려났다.

/박진현기자 lwk427@

프로농구 전적 (28일)

팀	1Q	2Q	3Q	4Q	합계
LG	21	14	16	19	70
동부	8	15	20	11	54
삼성생명	14	14	19	15	62
우리은행	11	14	23	15	63

프로배구 전적 (28일)

팀	점수	점수	팀
[illegible]	0	3	기업은행
우리카드	3	0	현대캐피탈

남북대결의 증거 '유진상가'

권기봉의 도시산책 <58>

서울 홍은동네거리에 가면 세운상가를 닮은 상가형 아파트를 만날 수 있다. 동서 방향 길이 200m, 폭 50m 정도로 상당히 육중한 모습이다. 지난 1970년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유진상가'(사진)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층 북쪽 부분에는 기둥만 세워져 있을 뿐 텅 비어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군사적인 데 있었다.

유진상가가 들어선 홍은동네거리 일대는 만약 북한군이 구파발을 돌파해 남하할 경우 막아내야 할 마지막 방어선에 해당한다. 거기가 뚫리면 무악재 너머로 바로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한복판에 다다를 수 있어서다. 그래서 그곳에 북한군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진지를 만들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한 까닭에 유진상가 1층의 북쪽 부분을 모두 기둥만 세운 채 비워두는 것이었다. 국군 탱크 한 대가 쏙 들어갈 만한 규모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폭과 높이를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후퇴해야 할 경우 한쪽 기둥만 폭파하면 건물 전체가 길게 쓰러질 수 있도록 해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했다. 건물 전체를 거대한 장보이자 대전차 장애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진상가가 지어지기 직전 한국의 상황은 한 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유사시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남산 1~2호 터널을 건설하고 청와대 방어를 위해 북악스카이웨이 등을 뚫은 이유다.

물론 요즘 유진상가나 남산터널, 북악스카이웨이를 두고 지난 시대의 남북 대결을 떠올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 서울 곳곳을 걸으며 지나간 시대,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한 이 땅의 현실을 생각해본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9			1		
			3				2	5
	3		6		5			
7	4							
9		8			7	5	3	
8			5					
1				2	3			
4	7	6	8	9				2

			5			7		
				2				9
		5		6	9	3		2
6		2						5
	1	7				2	3	
4						9		7
3		4	2	8		5		
9				5				
		8			7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맥스터
(마음이 여다이 리미티드 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내년 단체장 선거 출마 고민중 운로 남동쪽 향하고 관직 사주

ynin 남자 66년 8월 27일 미시 오후 8시

Q 저의 직대 관상사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건과 돈만 낭비하면 안 되기에 여쭤 봅니다.

A 귀하는 '나무를 잘 타는 잔나비 와 같은 형상으로 다케다는' 뜻의 조화가 무궁해 인생지사(人間萬事)의 보람을 만끽합니다. 험한 바위 위에 홀로 선 나무는 권위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독한 권위를 의미하는 성공의 비결은 인내에 있습니다. 46세부터 65세까지 흐르는 운에서 목화토(木火土)운이 상승하는 구조이므로 운로가 남동쪽으로 향해 도움이 되고 정관격으로 관직과 관계가 있는 사주입니다. 색달 편인의 성분으로 절자봉생의 한자이 되어 레더십과 언변이 있고 전화위복의 운기를 띠고 있으나 절지(絶地)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시련을 겪은 후 결실을 보게 되는데 식구 외의 여자는 조심하십시오.

역학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데 학업 시작에 나이는 상관없어

북두산산 남자 70년 7월 4일 유시 오전 1시

Q 사주 속으로 코너를 매일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역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 대학에서 역학을 정식 과목으로 택하는 걸 보다 더욱 욕심이 납니다. 올해 44세인데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A 명리에서는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 빈부귀천을 정의합니다. 사주학은 마음을 꿰다 박위 설도 죽음도 다 무의미하게 이긴다는 산중 거사나 도인 흉내를 내는 부류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런 부류들을 높지로 보면 최다 사귀를 이탈한 격으로 구분합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집착한다거나 뜨라우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쪼그라진 정신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사주학은 지나치게 속되거나 선지적 삶 갈구하는 부류와는 다릅니다. 삶이 팍팍해 여겨지더라도 천장에 죽을 일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면제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9일 (음 10월 2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지손에게 경사 있으니 기대하라. 60년생 겉으론 웃지만 심란하다. 72년생 주변에 꽃이 만발하니 이소가 절로. 84년생 부모 후광 덕에 성공의 날개 단다.

소 49년생 자만일 질뢰 여유 생긴다. 61년생 남의 일에 끼여들면 심신만 지곤. 73년생 이견이 다른 동료와 아찰 생긴다. 85년생 상사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아라.

호랑이 50년생 재물로 인한 고통 대비하라. 62년생 도모한 일은 이쉽게 좌절된다. 74년생 인사 청탁은 않는 게 많으니 심기라. 86년생 아이디어 많아 제택와 기쁘다.

토끼 51년생 공색한 변경은 오해만 산다. 63년생 의욕은 강하다 도우미가 없구나. 75년생 알아주는 후원자가 많아 든든하다. 87년생 어려움 땐 윗사람 도움 받아라.

용 52년생 따분한 일상에 변화의 바람 솔솔. 64년생 시냇강은 보이는데 흐름 없는 격. 76년생 목적지 앞두고 암초 만난다. 88년생 길 잃은 나그네는 길 찾게 된다.

뱀 53년생 수익은 생기지만 빚보다 해큐. 65년생 아랫사람과의 일다듬은 피하라. 77년생 체면에 얽매이면 손해만 부른다. 89년생 박수 쏟아질 때 더욱 겸손하라.

말 42년생 확신했던 일이 제저 의욕 상실. 54년생 동작이면 뜻밖의 이득 생긴다. 66년생 변덕이 심한 계획은 접어라. 78년생 능력 밖의 일 도모하면 재앙 부른다.

양 43년생 지손이 한자리에 모이니 즐겁다. 55년생 개물운 왕성해 곳간이 넘치는구나. 6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79년생 신변에 좋은 변화 있으니 기대하라.

원숭이 44년생 의욕이 넘칠수록 몸조심할 것. 56년생 멀리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68년생 내 것이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마라. 80년생 포부는 큰데 그릇이 작구나.

닭 45년생 어려운 자손 못 도와줘 안타깝다. 57년생 문서 일은 남분간 미뤄라. 69년생 상사에게 기다리면 희답 듣는다. 81년생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해 움직여라.

개 46년생 간기라 뇌졸 편 심녀와 곡 챙겨라. 58년생 의도는 좋으나 결과 나빠 괴롭다. 70년생 자신감 넘쳐도 과욕 금물. 82년생 거짓말하면 부처도 돌아앉는다.

돼지 47년생 자손이 찾아와 용돈까지 준다. 59년생 내 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71년생 허세 부리면 지출만 는다. 83년생 생각이 많으면 실수하니 일에만 집중할 것.